

보도시점 5. 28.(목) 초간 < 5. 27.(수) 14:00 >

중기부, 광주·전남과 직류기반 신재생에너지 혁신생태계 키운다

- 전남 제조역량과 광주 AI 연계... 에너지 신산업 초광역 협력 본격화
- 기술개발부터 실증, 인증, 사업화까지 연계 지원체계 구축 추진

중소벤처기업부(장관 한성숙, 이하 중기부)는 5월 27일(수) 한국전력 에너지신사업기술연구소(전남 나주)에서 「광주·전남 신재생에너지 혁신 성장 포럼」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포럼은 인공지능과 재생에너지 확산으로 전력산업이 직류(Direct Current) 중심으로 전환*되는 흐름에 대응해, 광주·전남의 주력산업 중 하나인 에너지산업 협력방안과 지역기업 성장 전략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 AI, 데이터센터, ESS, EV, 태양광 등은 직류기반이지만, 현재 전력망은 교류 중심이라 교류·직류 변환 과정이 반복되는 비효율성을 기업 혁신으로 극복 필요

특히 전남의 신재생에너지·전력기자재 제조 기반과 광주의 인공지능 역량을 연계해, 서남권 에너지산업의 새로운 성장 생태계를 구축하는 방안이 중점적으로 논의됐다.

이날 행사에는 노용석 중기부 제1차관을 비롯해 녹색에너지연구원, AI(인공지능)산업융합사업단, 한국전기연구원, 한국광기술원 등 유관기관과 직류 분야 중소·중견기업, 광주·전남 지방정부 관계자 등이 참석했다.

참석자들은 포럼에 앞서 직류산업 글로벌혁신특구 현장을 방문해 직류 전환 관련 실증 인프라를 둘러보고, 직류 기반 에너지 산업의 경쟁력 강화 방안을 논의했다.

첫 번째 발제에서는 전남테크노파크가 전남의 신재생에너지 인프라와 광주의 인공지능 산업 기반을 연계한 직류 전력산업 육성 전략을 발표했다. 이어 녹색에너지연구원과 UL솔루션은 각각 중기부가 지원한 전남의 중소기업과 독일 프라운호퍼 간 공동 기술개발 성과와 글로벌 인증 지원 사례를 소개했으며, AI(인공지능)산업융합사업단은 에너지 탐지·거래·유지 보수 분야의 인공지능 활용 전략을 제시했다.

이어진 토론에서는 ▲직류 기반 신재생에너지 협력 프로젝트, ▲전력기자재 기업 공동 기술개발·인증·수출 지원, ▲인공지능과 에너지 산업 융합 방안 등을 중심으로 의견을 나눴다.

노용석 중기부 제1차관은 “인공지능 확산과 재생에너지 확대에 따라 전력 분야도 직류 기반으로 빠르게 전환되고 있는 만큼, 광주·전남이 보유한 에너지·인공지능 역량을 바탕으로 한 협력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하며, “중기부도 기술개발부터 실증·인증·사업화, 글로벌 진출까지 지역 협력 사업과 연계한 지원을 적극 추진해 지역 에너지 산업의 성장을 뒷받침하겠다”고 밝혔다.

담당 부서	지역기업정책관 지역혁신정책과	책임자	과 장	윤석배 (044-204-7820)
		담당자	사무관	홍승한 (044-204-7572)

□ 개요

- (일시) '26.5.27(수) 13:50~15:30(100분)
* 직류산업 글로벌 혁신특구 사전 방문(13:20~13:40)
- (장소) 한전 에너지신사업기술연구소
* 전남 나주시 동수동 393-2
- (주제) 중기부 제1차관
* 참석 : 기업인, 지방정부(전남·광주) 담당 국장, 전문가, TP, 기정원 등 20인

□ 주요내용

- AI·데이터센터·분산에너지 확산에 따른 미래전력 전환 방향
- 직류(DC) 기반 전력기술 및 에너지 분야 중소기업 성장 방안
- AI 기반 에너지 운영, 실증, 인증, 사업화 전략
- 광주 AI 역량과 전남 에너지 인프라를 연계한 협력모델 모색

□ 진행순서

시간	내용	비고
13:53-14:23 (발제)	① 직류전환 기반 에너지 신산업의 중요성과 초광역협력사업 추진 방향	전남TP
	② 직류 전환 전력기자재의 한·독 공동 기술 개발 성과 공유	녹색에너지연구원
	③ 중소기업 기자재의 글로벌 인증 확보를 통한 수출경쟁력 강화	UL 솔루션
	④ 에너지 탐지, 거래, 유지보수 분야의 AI 융합 전략	AI산업융합사업단
14:23-15:23 (토론)	【의제】 광주·전남 미래전력 협력과 기업성장	자유토론